새로운 분위기의 9홀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27홀 개장
예약 : www.hpdynasty.co.kr 080) 320-7700

모처럼 여유 좋지만 경기감각 떨어질까 걱정

선수들 실내연습장 찾아 웨이트·배팅 훈련

목동으로 원정을 떠난 KIA 타이거즈가 장맛비에 또 발이 묶였다.

14일 서울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면서 목동구장에서 예정된 KIA 타이거즈와 히어로즈와의 경기가 우천 취소됐다. 비 때문에 지난 주말 두산과의 홈경기를 쉰 KIA는 원정 첫 경기마저 취소되면서 3경기 연속 그라운드에 오르지 못했다.

15일 경기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5일 만에 경기를 갖게 된다.

여름 무더위에 지친 선수들은 모처럼 여유를 만끽하고 있지만, 코칭 스태프는 자칫 경기 감각을 잃을까 노심초사다.

조범현 감독은 "선수들 개인이 알아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에게 컨디션 관리를 맡기고 있다"면서도 "선수들의 컨디션을 면밀하게 살펴 선발 로테이션 등을 조절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14일 일찌감치 우천취소가 선언되면서 선수들은 4일째 휴업 상태에 들어갔지만 훈련은 계속됐다.

이날 KIA 선수단은 야수조와 투수조로 나눠 각각 성남고와 목동구장에서 훈련을 가졌다. 목동구장에 따로 실내 연습장이 마련되지 않은 관계로 야수조는 성남고 실내 연습장을 찾아 웨이트와 배팅 훈련 등을 소화했다. 투수조는 목동구장 2층 통로에서 웨이트와 러닝 등을 하면서 몸을 풀었다.

경기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KIA 선수단은 앞서 11, 12일 빗속에서도 정상적으로 모든 훈련을 소화했었다. 이동일인 13일에도 특별 타격훈련을 한 뒤 원정길에 올랐다.

박빙의 순위 싸움중에 재충전의 기회를 얻기는 했지만 길어지는 휴식이 득이 아니라 독이 될수도 있다.

지난주 윤석민이 가세하면서 선발진 재정비를 끝마쳤지만 KIA는 2경기 밖에 소화하지 못했다. 로테이션이 어긋나면서 선발진들의 컨디션 조절이 쉽지 만은 않다.

지난 6월30일 삼성전 선발로 내정됐었던 서재응은 우천 취소로 마운드에 오르지 못했다가 7월5일 한화와의 원정경기에 선발로 출격했다. 6월24일 이후 11일만에 등판한 서재응은 이날 한화에 홈런 4방을 얻어맞는 등 난조를 보이며 패전투수가 됐다.

불펜진들도 오랜만의 등판이 쉽지 많은 않은 상황이다. 불펜의 핵심 유동훈은 "너무 오래 등판하지 않으면 경기 감각이 떨어져 오히려 투구하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이번주 격돌하게 되는 히어로즈와 한화의 투수진들에 비하면 KIA 전력이 한층 앞서있지만 장맛비에 식혀진 마운드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지 미지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 히어로즈 전 우천 취소

14일 목동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KIA 타이거즈와 히어로즈의 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됐다. LG 트윈스와 SK 와이번스와의 잠실경기도 우천취소됐다. 이날 취소된 경기는 추후에 편성될 예정이다.

지난 9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KIA와 LG와의 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된 뒤 KIA의 '아기 호랑이' 안치홍(사진 왼쪽)과 김선빈이 빗속에서 슬라이딩 세러모니를 하며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길어지는 장마 브레이크는 이번주 프로야구 판도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왕이면 메이저 우승 한번 더"

■ '메이저 퀸' 지은희 금의환향

"남은 시즌 욕심 내지 않겠다"

"이왕이면 메이저대회에서 한번 더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US여자오픈골프대회에서 역전극을 펼치며 우승한 지은희(23·휠라코리아)가 14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가족과 친지, 팬들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어머니 변광일(51)씨와 함께 귀국한 지은희는 "작년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웨그먼스LPGA대회에서 처음 우승했을 때도 많은 분들이 환영해 주셨는데 오늘은 더 많은 분들이 공항에 나와 주셨다"며 "환영 인파를 보니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했다는 실감이 난다"고 말했다.

지은희는 "남은 시즌에는 큰 욕심을 내지 않겠다"면서도 "이번 달에 에비앙 마스터스와 브리티시여자오픈이 열리는데 이왕이면 메이저대회에서 한번 더 우승했으면 좋겠다"며 웃음을 지었다.

두달만에 귀국한 지은희는 "먼저 휴식을 취한 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싶다"고 덧붙였다. 딸을 마중나온 아버지 지영기(54)씨는 "은희의 우승 퍼트가 홀에 떨어지자마자 축하전화가 오기 시작해 하루종일 전화만 받았다. 내 평생 이렇게 전화를 많이 받기는 처음이다"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지영기씨는 "작년에 LPGA 투어에서 처음 우승했을 때 가평군청에서 카 퍼레이드를 열어 줬다. 이번에는 비가 많이 와 축하행사는 브리티시여자오픈이 끝나고 난 뒤 열릴 것 같다"고 말했다. 지은희는 고향인 경기도 가평에서 휴식을 취한 뒤 17일 서울 소공동 백화점에서 팬사인회를 갖고 19일 LPGA 투어 에비앙마스터스(23~26일)가 열리는 프랑스로 출국한다.

이어 30일 영국 랭커셔에서 개막하는 브리티시여자오픈에 출전하는 지은희는 한국으로 돌아와 8월14일 열리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하이원 리조트컵에서 한국팬들과 만난다. /연합뉴스

광주진흥고 2연패 도전

화랑대기고교야구 오늘 개막

동성·화순고도 출사표

광주 진흥고가 화랑대기 2연패에 도전한다. 제61회 화랑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가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부산구덕야구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에는 광주진흥고와 동성고 그리고 화순고교가 광주·전남을 대표해 출사표를 던졌다. 특히 지난해 우승팀 진흥고는 화랑기 우수투수상에 빛나는 에이스 김정훈을 앞세워 대회 2연패에 도전한다.

1999년과 2005년 화랑기 준우승팀인 진흥고는 지난 대회 패권을 차지하며 화랑대기 역사상 첫 호남지역 우승팀의 영예를 안았다. 진흥고는 앞선 12일 대구 상원고와의 대붕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준결승에서 1-5로 패하며 분패를 삼켰지만, 올 시즌 처음으로 전국대회 4강에 진출하며 선전했다.

부전승으로 16강에 진출한 진흥고는 17일 오전 10시 강원 원주고와 제주고의 승자와 8강을 다투게 된다. 화순고는 16일 오후 1시 서울 휘문고와 동성고는 같은날 오후 7시 부산고와 대회 1회전을 치른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올해 무등기 우승팀인 부산 개성고도 출전해 시즌 2연패에 도전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펠프스와 멋진 승부 펼치겠다"

■ 박태환 로마세계선수권 출전 17일 출국

한국 수영의 희망 박태환(20·단국대)이 이달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막하는 200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출전을 위해 17일 출국한다.

박태환 전담팀을 운영하는 SK텔레콤 스포츠단은 "박태환이 17일 출국해 2007년 멜버른 세계선수권대회와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자유형 400m를 비롯해 자유형 200m, 1,500m 세 종목에 출전한다"고 14일 밝혔다.

로마 세계선수권대회는 오는 17일부터 8월2일까지 열리며 박태환이 출전하는 경영 종목은 26일 시작한다.

박태환은 현지 시차 적응과 컨디션 조절을 위해 수영국가대표팀보다 이틀 앞서 출국한다.

이번 대회 400m 예선은 한국시간으로 26일 오후 4시30분, 200m 예선은 27일 오후 4시30분, 1,500m 예선은 8월1일 오후 4시30분 열린다.

박태환은 이번 대회 준비를 위해 지난 1월과 4월 SK텔레콤 전담팀과 6주씩 미국 전지훈련을 다녀왔으며 지난달부터는 태릉선수촌에 들어가 수영 국가대표팀과 마무리 훈련을 해왔다.

박태환은 출국에 앞서 "이번 대회 목표는 자유형 400m 2연패와 1,500m 기록단축"이라며 "또한 200m에서 세계 최강 펠프스와 멋진 승부를 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이어 "함께 출전하는 다른 선수들 기량이 많이 좋아졌다는 소식을 들어 부담되긴 하지만 언제나 나를 응원해주는 국민을 위해 국민 남동생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더 강해진 박태환의 모습을 기대해 달라"고 부탁했다.

박태환은 대회를 마치고 오는 8월6일 수영국가대표팀과 함께 귀국한다. /연합뉴스